



8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임종구
서 기 박용규

1. 조직

- 위 원 장 : 임종구
- 서 기 : 박용규
- 총 무 : 양정길
- 당 연 직 : 이승희 김종혁 최우식
- 전문위원 : 배광식 장봉생 김한옥
- 위 원 : 정상목 강동현 정두영 김상윤 안홍대 최백기 조길연 김호겸 김진묵 문광선
- 부위원장 : 배만석
- 회 계 : 이해중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11. 8(목)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기로 하다.

가. 임원 : 위원장 임종구 목사, 부위원장 배만석 목사, 서기 박용규 목사, 회계 이해중 장로, 총 무 양정길 목사

나. 전문위원 : 위원장 배광식 목사, 장봉생 목사, 김한옥 목사

② 위원회 워크숍(Workshop)을 2018년 12월 11일(화) ~ 12(수)에 개최하기로 하다.

③ 위원회 워크숍(Workshop) 준비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7. 23(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② 위원장이 해외교단 방문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③ 아래와 같이 위원장의 해외 기관 및 교단의 총회 방문을 허락기로 하다.

가.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 2019.8.8.(목) ~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나. 호주장로교회(PCAUstralia) : 2019.9.9.(월) ~ 11(수), 호주

④ 제104회 총회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청원서' 및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 작성은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⑤ 제104회 총회 때 예정된 해외교단 리셉션 준비와 관련하여 ‘초청 해외교단 리스트’ 및 ‘의전메뉴얼’을 보고하니 총회 해외교단 리스트에 일본그리스도교회를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 ⑥ 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총회임원회의 요청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하고 규칙부에 심의 요청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1. 27(화) 11:00

☞ 장 소 : 대전역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회 예산으로 기지출된 제103회 총회 해외교단 방문자 리셉션 비용(420만원) 및 제103회 총회 초청 경비(320만원)와 관련하여 총회임원회에 그 비용을 요청하기로 하다.
- ② 지난 회기에 가입한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의 교단 분담금과 관련하여 1만 달러를 총회재정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 ③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파송이사로서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위원장 임종구 목사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④ 필리핀장로교회(GAPCP) 상호협력 및 교류요청의 건은 전문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하다.
- ⑤ 멕시코민족장로교회(INPM)의 제자훈련 교육지원 요청의 건은 더 검토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2. 12(수) 10:00

☞ 장 소 : 인터시티호텔(대전 유성)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회에 청원한 사항들에 대해 본부 직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다.
- ② 호주장로교회(PCA,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및 남아공개혁교회(GKSA)의 연구 방문은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③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해 첨부와 같이 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7(목) 15:00

☞ 장 소 : 대전역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소개서 제작을 위해 이천만원을 추경청원하기로 하고, 제작 및 편집, 출판 등을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③ 위원장의 호주장로교회(PCA) 방문 보고를 받기로 하다.
- ④ 남아공개혁교회(GKSA)의 방문을 승인하기로 하되, 특별위원으로 전 대신대 총장 김인환 교수를 선임하기로 하다.
- ⑤ 위원 활동을 위해 일비로 국내는 3만원, 국외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⑥ 아래와 같이 해외 교단 총회에 위원장과 임원이 참석하기로 하다.



교단명	일자	장소
일본동맹기독교단	3월18일(월)~20일(수)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5월21일(화)~23일(목)	시애틀, 워싱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5월21일(화)~24일(금)	LA, 캘리포니아
미국장로교회(PCA)	6월25일(화)~28일(금)	델러스, 텍사스
페루복음개혁신장로교회(IEPRP)	6월27일(목)~29일(토)	모요밤바, 산마르틴
호주장로교회(PCA)	9월9일(월)~11일(수)	시드니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9. 6. 20(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현재 교류 중인 해외 교단 및 기관과 관련하여 제104회 총회 초청을 총회임원회에 청원키로 하다.
 -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회(RCJ), 남아공개혁교회(GKSA), 일본동맹기독교단,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브라질장로교회(IPB), 미국장로교회(PCA), 페루복음개혁신장로교회(IEPRP),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호주장로교회(PCA), 멕시코민족장로교회(INPM), 재일대한기독교단, 필리핀장로교회(GAPCP), 정통장로교회(OPC),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
- ③ 멕시코민족장로교회(INPM)과 페루복음개혁신장로교회(IEPRP)는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초청키로 하다.
- ④ 총회소개서 책자 제작은 차기 회기에서 진행키로 하다.
- ⑤ 위원장이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회(RCJ) 대표단과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⑥ 총무 양정길 목사가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및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총회 참석 후 보고하다.
- ⑦ 위원장이 페루복음개혁신장로교회(IEPRP) 및 멕시코민족장로교회(INPM)를 방문한 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다.
- ⑧ 2019년 8월 8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에 총회장과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19. 8. 28(월) 14:00

☞ 장 소 : 대전역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위원장의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 방문 보고는 받기로 하다.
- ③ 2020년 WRF 이사회를 우리 총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사항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키로 하다.(예산 3000만원)
- ④ 위원장의 일본그리스도교회 교단 관계자 방문보고는 받고 재정요청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⑤ 총회보고서는 보고된 대로 받되 추가 내용은 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다.

- ⑥ 총회영문명을 GAPCK(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에서 PCK(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Hapdong]으로 변경 청원키로 하다.
- ⑦ 총회 해외교단 리셉션 준비를 회계 이해중 장로와 총무 양정길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세계주요장로교단연구 WORKSHOP

- (1) 일 시 : 2018. 12. 11(화) ~ 12일(수)
- (2) 장 소 : 인터시티호텔(대전)
- (3) 참석인원 : 18명
- (4) 주요일정

순서	담당자	내용
특강1	총신대 정승원 교수	미 대륙 장로교회의 현황
특강2	위원장 임종구 목사	세계개혁교회의 현황과 교류 방향
간담회	다함께	2019년도 사업계획 논의 등

(5)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숙박비 및 식비	1,611,200원	회의실 대여비 포함
일비, 여비, 강의비	1,410,000원	
진행비	172,000원	
합계	3,193,200원	

2) 해외 교단 방문

- (1)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회(RCJ) 제73회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8년 10월 8일(월) ~ 10일(수)
 - ② 참 석 자 : 총회장 이승희 목사, 위원장 임종구 목사
 - ③ 장 소 : 일본 요코하마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가이드, 통역, 섭외 등	1,017,880원	현지 선교사
행사비	802,620원	총회장 위로 만찬, 선물
항공료	570,000원	위원장
체류비용	411,730원	식사, 교통
합계	2,802,230원	

(2) 호주장로교회(PCAustralia) 교단 방문

- ① 기 간 : 2019년 2월 1일(금)
- ② 참 석 자 : 총회임원, 위원장 임종구 목사
- ③ 장 소 : 호주 시드니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항공료	2,600,000원	위원장
가이드, 통역, 섭외 등	804,434원	현지 선교사
행정비	279,000원	현수막, 선물
체류비용	175,122원	숙박, 교통
차액	-40,556원	위원장 부담
합계	3,818,000원	

(3) 남아공개혁교회(GKSA) 교단 방문

- ① 기 간 : 2019년 2월 14일(목)
- ② 참 석 자 : 위원장 임종구 목사, 특별위원 김인환 교수
- ③ 장 소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항공료	3,274,231원	위원장, 특별위원
가이드, 통역, 섭외 등	1,100,000원	현지 선교사
체류비용	534,622원	숙박, 교통, 식사
행사비	446,257원	GMS선교사 가정 만찬, 선물
위원 활동비	300,000원	5일×2명(3만원)
차액	-52,179원	위원장 부담
합계	5,602,931원	

(4) 일본동맹교단 제70회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9년 3월 21일(목) ~ 22일(금)
- ② 참 석 자 :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위원장 임종구 목사, 부위원장 배만석 목사
- ③ 장 소 : 일본 도쿄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항공료	1,080,000원	위원장, 부위원장
체류비용	850,706원	숙박, 교통, 식사
행사비	759,130원	GMS선교사 만찬, 선물
가이드, 통역, 섭외 등	600,000원	현지 선교사
위원 활동비	240,000원	4일×1명(위원장), 2일×2명
차액	-199,836원	위원장 부담
합계	3,330,000원	

(5)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및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9년 5월 21일(화) ~ 24일(금)

- ② 참 석 자 : 총회임원, 총무 양정길 목사
- ③ 장 소 : 미국 시애틀(WKPC), 로스앤젤레스(KAPC)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항공료	1,549,700원	총무
체류비용	175,000원	교통, 식사
위원 활동비	120,000원	4일×1명
합계	1,844,700원	

(6) 미국장로교회(PCAmerica) 제47회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9년 6월 25일(화) ~ 28일(금)
- ② 참 석 자 : 총회임원, 위원장 임종구 목사, 서기 박용규 목사
- ③ 장 소 : 미국 델러스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항공료	5,259,800원	위원장, 서기
체류비용	2,961,996원	숙박, 식사, 여행자보험
가이드, 통역, 섭외 등	2,901,760원	현지 선교사
행사비	2,884,378원	한인노회 만찬, 선물
위원 활동비	300,000원	5일×2명×3만원
차액	-122,587원	위원장 부담
합계	14,185,347원	

(7) 페루복음개척장로교회(IEPRP) 제22회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9년 6월 27일(목) ~ 29일(토)
- ② 참 석 자 : 위원장 임종구 목사, 선교사 김영락 목사
- ③ 장 소 : 페루 모요밤바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항공료	2,673,258원	위원장, 김영락 선교사
체류비용	1,880,289원	숙박, 식사
행사비	638,316원	페루선교사 만찬, 선물
가이드, 통역, 섭외 등	2,165,400원	현지 선교사
위원 활동비	300,000원	5일×2명×3만원
차액	-84,005원	위원장 부담
합계	7,573,258원	



(8)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9년 8월 8일(목) ~ 12일(월)
- ② 참 석 자 : 위원장 임종구 목사
- ③ 장 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④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가이드, 통역 등	1,080,000원	김인환 총장, 현지 선교사
행사비	293,424원	GMS선교사 만찬
위원 활동비	150,000원	5일×1명×3만원
교통비	146,500원	
차액	-63,924원	위원장 부담
합계	1,606,000원	

(9) 호주장로교회(PCAustralia) 총회 참석

- ① 기 간 : 2019년 9월 9일(월) ~ 11일(수)
- ② 참 석 자 : 위원장 임종구 목사
- ③ 장 소 : 호주 시드니

4. 결산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비고
총회예산	60,000,000원	회의비	3,218,100원	식비 포함
		제103회 총회 행사비	8,000,000원	초청 항공비, 통역, 차량 등
		워크숍	3,193,200원	3-1)-(5) 참고
		업무추진비	932,400원	일본교단 방문 미팅, 감사
		해외교단 방문	40,762,466원	
		미국PCA, 총회	14,185,347원	3-2)-(6) 참고
		페루IEPRP 총회	7,573,258원	3-2)-(7) 참고
		남아공GKSA 교단본부	5,602,931원	3-2)-(3) 참고
		호주PCA 교단본부	3,818,000원	3-2)-(2) 참고
		일본동맹교단 총회	3,330,000원	3-2)-(4) 참고
		일본 RCJ 총회	2,802,230원	3-2)-(1) 참고
		한인미주 총회	1,844,700원	3-2)-(5) 참고
		WRF 총회	1,606,000원	3-2)-(8) 참고
합계	60,000,000원	합계	56,106,166원	
		잔액	3,893,834원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 - 첨부1 참고

이번 총회에도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에 의거하여 해외 교단 방문 및 초청을 했습니다. 해외 교단과의 교류에서 매 총회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담금 납부

우리 총회의 역량을 근거로 미국장로교회(PCA) 및 브라질장로교회(IPB)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금을 부담하고자 하오니, 103회기와 같이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총회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이사회 한국개최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내년에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우리 총회가 이를 주관하도록 하고 총회임원에게 맡겨 진행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총회 영문명칭 변경

우리 총회의 영문명칭(GAPCK)에서 GA(General Assembly) '총회'라는 명칭을 교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다른 세계장로교단의 사용예가 없고 맞지 않으므로 영문명칭을 PCK(Hapdong)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GAPCK(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변경-PCK(Hapdong): Presbyterian Church in Korea(Hapdong)

5. 재정청원 : 7천만 원

- ① 해외교단 총회 방문비용 : 3,000만원
- ② 제104회 총회 해외교단 대표단 의전 및 리셉션 비용:1,000만원
- ③ 총회소개서 제작 및 발간 : 1,500만원
- ④ 위원회 워크숍(국내) : 500만원
- ⑤ 회의비 : 500만원
- ⑥ 예비비 : 500만원

2019년 9월

세 계 교 회 교 류 협 력 위 원 회

위원장 임종구

서기 박용규



첨부 1.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

1. 동반자 관계 그룹(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급 교류 단계)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멕시코민족장로교회 (Iglesia nacional presbiteriana de México, INPM)	×	×	×	2,800,000명	6,000	MOU 체결
페루복음개혁장로교회 (Iglesia Evangélica Presbiteriana y Reformada en el Perú, IEPRP)	×	×	×	10,270명	152	MOU 체결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	×	×	374,736명	1,568	교단 교류
브라질 장로교회 (Igreja Presbiteriana do Brasil, IPB)	×	×	×	759,500명	6,051	MOU 체결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	×	×	68개 교단 (2019년)		가입
호주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PCA)	×	×	×			교단 교류
남아공개혁교회 (Gereformeerde Kerken in Suid-Afrika, GKSA) - 노스웨스트대학교	×	×	×	120,000명	389	교단 교류

2. 선교협력 교류 그룹(선교 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단계)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정통장로교회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	×	×	×	30,918명	278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Free Church of Scotland)	×	×	×		100	
네덜란드 기독교개혁교회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 CGK) -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	×	×	72,562명	180	
인도네시아 개혁복음교회 (Indonesia Reformed Evangelical Church, IREC)	×	×	×		200	

3. 일반협력 교류 그룹(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북미기독교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	×	△	×	235,921명	1,090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RCJ)	×	○	×	9,000명	220	교단 교류
일본동맹교단	×	○	×			교단 교류
일본그리스도교회 (Christ Church of Japan, CCJ)	×	○	×			교단 교류
연합개혁장로교회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ARPC)	×	△ (여성집사)	×	39,681명	296	

4. 해외 한인교단 그룹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KPC)	×	×	×	52,167명	532	교단 교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American Prebyterian Church, KAPC)	×	×	×	70,000명	600	교단 교류
필리핀장로교회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Philippines, GAPCP)	×	×	×	20,000명	300	교단 교류
재일대한국기독교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	○	×	5,000명	95	교단 교류



첨부 2.

일본그리스도교회(CCJ)의 역사와 신앙

1. 일본그리스도교회의 역사와 현황

일본그리스도교회는 1951년 봄에 일본기독교교단에서 이탈한 39개의 교회, 전도소가 3개의 노회를 형성하여 동년 5월에 교단창립을 하였고, 메이지시대에 일본에서 최초로 세워진 구 일본기독교회(장로교,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과 헌법규칙을 계승한 장로교, 개혁신교회다.

1951년 당시 일본기독교교단은 신앙적 고백의 일치 없이 당시 일본정부의 강요에 의하여 여러 교파가 합동한 태평양전쟁 전시하의 교회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앙고백의 일치에 의한 교회형성을 원하였던 우리는 일본기독교교단 안에서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아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개혁신교회이며, 교회정치면에서는 장로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일본전국에 약 136의 교회, 전도소, 4개의 노회를 구성하고 있다.

1953년 10월, 제3회 총회에서 구 일본기독교교회의 신앙고백에 개혁신교회의 특색을 더한 헌법규칙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총회산하에 신학교 설립을 결의하여, 1954년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00명에 가까운 목사, 전도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구 일본기독교교회의 자립전도 정신을 계승하여, 총회 전도국, 노회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선교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복음전도에 힘써 왔고, 세계개혁신교회의 일원으로 연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2. 일본그리스도교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혁신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전시 하에 지은 전쟁책임과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야스쿠니문제를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서 짐을 지고 있고, 태평양 전쟁 중에 한국, 조선교회에 강요한 신사참배를 강요한 죄에 대하여 사죄를 표명 하였다. 동시에 전쟁 중에 재일조선교회를 일본기독교교단에 강제로 합병시킨 죄책을 고백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선교협약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그 외에 예장통합 및 기장과 선교협약을 맺었으며, 대만기독교장로교회와도 선교협정을 체결 하였다.

철저하게 신앙 고백적 교회이기를 원하고 있고, 동시에 장로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존중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첨부 3.

일본동맹기독교단(Japan Alliance Christ Church)의 역사와 신앙

1. 일본동맹교회의 역사

일본동맹기독교단은 1891년 11월 22일, 스칸디나비아언어미션(SAM)의 파송을 받은 15명의 선교사가 요코하마에 상륙한 날로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당시 일본의 미전도지인 보소반도, 히다, 이즈의 각 섬에 전도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북해도 아이누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에 교회 설립에 대한 의도가 없었으나 선교사들과 일본인 전도자들의 협력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 1922년 일본동맹기독교협회가 조직되었다. 전쟁 체제하에 종교단체법이 시행되어 1940년 일본성화기독교단을 설립하였으며, 1941년에는 일본기독교단 제8부에 편입되었다. 패전 후 1948년, 그 일부의 교회가 동 교단을 탈퇴하였으며, 다시 파송 받아 온 SAM 선교팀이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Team)으로 개편되어 일본동맹기독교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는 협력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스웨덴 어라인스 미션과도 패전 후의 교회개척 사역의 협력관계가 있었다.

일본동맹기독교단은 “성경신앙, 선교협력, 합의제”의 기본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극적인 교회 개척, 건전한 교회 성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교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2. 일본동맹교단의 현황

현재 16교구, 교회 수 255, 목사 287명, 전도사 37명이 약 1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향한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견한 해외 선교지는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파푸아뉴기니아, 브라질, 북미원주민, 몽골, 말레이시아 등이다.

1950년 동맹기독교성서학원으로 시작된 동경기독교대학교(대학원)를 통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마츠바라코, 하마나코에 청소년 전도를 위한 캠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선교100주년기념대회(1991년10월10일)와 105주년기념대회에서는 과거의 신사참배로 인한 우상숭배의 죄와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죄를 회개하며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을 표명하였다. 동 교단에는 한국GMS(교단출신포함)파견의 선교사들(조남수, 김돈영, 김환기, 박충훈, 이도현, 이준호, 김병구, 조드류, 김정혁, 정영철/수속중)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예정고신, 합신교단 출신의 선교사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3. 일본동맹기독교단 신앙고백 (헌법 제1조)

제1조 본 교단은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공교회의 일원으로 성경 신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들은 성경에 계시된 사도신경을 비롯한 공동의 신조가 표명하며, 종교개혁에 의한 선명한 신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믿으며 고백한다.

1. 신구약 성경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를 계시하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절대 규범이다.
2. 하나님은 영이시며, 유일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의한 삼



- 위일체이시며,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3.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진 것을 섭리에 따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4.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에 유혹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와 비참함,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죄인이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 갈수가 없으며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
 5.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인간이시다. 주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에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주는 하늘에 승천하시어 아버지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6. 성령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하여 죄를 인정하게 하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더욱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 져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세상 끝 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며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7. 교회는 성령에 의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목자 되신 주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양무리이다. 지상의 교회는 다시 오실 주를 대망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권징을 중요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8. 종말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시고 재림하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주는 우리들을 육체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 자신의 영광과 꼭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아멘!

첨부 4.

재일대한기독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의 역사와 신앙

1. 재일기독교회의 역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1908년 일본의 수도 동경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가 조국교회의 지원으로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 열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일동포교회로서 100교회와 5천명의 신도로 5개지방회(노회)로 조직되어 있다. 지난 2008년에 KCCJ는 선교10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지나온 100년간의 한 많은 역사를 돌이켜 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표어를 '감사의 100년, 희망의 100년'이라 정하고 창세기 45:5의 요셉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고 재일동포 선교의 100주년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8년에 KCCJ는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민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재일동포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품는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생의 장막을 넓히 펼쳐 나가기로 하는 교회일치의 선교적 이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출발했다.

KCCJ는 출발에서부터 교회일치적인 교단이었다.

KCCJ의 선교역사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부터 시작되어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계속되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 식민지화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갑신정변(1884년)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본으로의 국비 유학생 파견이 1895년데 재개되면서, 1903년부터는 사비 유학생도 늘어나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면서 1906년에 일본의 동경에 와 있는 수 백명의 조선인 유학생들을 위해 재일본조선 YMCA가 설립되었고 성서연구를 시작하면서 그 활동이 전개되어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일본 땅에 한인교회가 설립된 것은, 구한말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 배움을 통하여 조국을 건져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현해탄을 건너 왔던 조선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906년 서울YMCA가 김정식 총무를 동경으로 파송하여 재일본 조선 YMCA를 설립하여 성경공부를 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1908년에 동경교회가 탄생하였다. 1908년에 동경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 수는 270명 정도였고 1910년에는 420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동경 YMCA의 2층방 하나를 빌려서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를 발족시키고 성경연구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주일예배를 시작했다. 평양에 있던 정익로 장로가 1908년에 동경에 오게 되어 이를 계기로 김정식 YMCA 총무, 10여명의 유학생이 예배 후에 모여 YMCA와는 별도로 교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동경교회가 설립되었다. 목회자가 필요했던 동경교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독노회)에 목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1909년에 한석진목사가 일본으로 파송되어 동경교회는 교회 조직을 정비함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런데 동경교회에 모이는 유학생 중에는 대부분 장로교 교인이었지만 그 중에 1명이 감리교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목사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 1912년에는 조선의 장로회와 감리회에 의한 선교 합의가 이루어져 양교회가 교대로 목사를 파견하여 동경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교회일치적인 것이 특징이었으며 동경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있는 KCCJ는 교파성이 없고 조국의 여러 교단이 함께 참여하는 교단, 그리고 약자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섬기는 교회로 발전해 왔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1914~18)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호경기를 맞이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



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농지, 토지 등을 수탈당한 수많은 동포들이 일감을 찾아 고베(神戸)와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의 산업지역으로 도일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30만 명이 넘는 조선의 남녀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 왔는데 동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관서지역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후 일본의 큐슈지방에도 많은 한인들이 공장과 탄광을 찾아 모여 들었다. 이로 인해 1927년에는 후쿠오카(福岡)교회, 고쿠라(小倉)교회 등 여러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의 신자들은 유학생이나 노동자들 할 것 없이 조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빼앗기고 일본에 건너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만은 철저했다.

2. KCCJ의 수난기

재일동포선교는 1927년에, 캐나다연합교회를 반대한 캐나다장로교회가 조선선교지 함경도를 떠나면서 재일동포 선교에 가담하게 된 것이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세계적 교회일치의 선교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캐나다장로교회 선교사 Luther Lisgar Young 목사는 1906년도부터 함경도에서 선교활동을 했지만 1927년부터 일본에 와서 일본선교연합공의회와 합의하여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산재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여 큐슈에서 사할린까지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그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토대를 확고하게 하였으며 그러한 관계로 지금까지도 90년 동안 캐나다장로교회(PCC)와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온 재일동포들의 삶이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농지를 잃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온 실향민이었던 동포 노동자들은 이곳에서도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교회는 마음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고 고향의 소식과 민족의 아픔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해왔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말과 일본어를 습득하는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1934년 2월에는 ‘재일본조선기독교대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신조 헌법을 제정하고 조직교회가 되어 독립된 교단으로 목사 장로 안수를 집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계속되어지는 침략전쟁의 길로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해 전쟁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을 한곳에 모으려는 명분 아래 교단을 통폐합하는 종교단체법이 1939년에 성립됨으로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는 존속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40년에는 ‘일본기독교회’로부터 목사의 재시험과 일본어로 설교 할 것과 일본기독교회의 신조를 따를 것이라는 조건에 의해 합동이 되고, 이듬해인 1941년 6월에 ‘일본기독교단’에 통합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재일 조선기독교회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말았다. 설교나 공식기록은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었다.

3. KCCJ의 재건기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일본은 패배의 슬픔에 잠긴 날이었지만 조국은 물론 일본에 살고 있던 동포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는 가운데 일본에 남게 된 몇 명의 목회자와 300여명의 신자들에 의하여 동경교회가 재건되면서 1945년 11월 15일에 서경교회(현재 교토교회)에서 21교회가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던 구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의하고 통고문을 발송한 후 ‘재일조선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하였다. 1948년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방의 기쁨을 뒤로 하고 조국은 남북이 분단됨으로 인하여 재일동포 사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 사회에 크나큰 문제를 안겨 주었고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일본의 한인 사회에서도 역력히 나타난 것이었

다. 남한 정부를 지지하고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거류민단, 일명 '민단'>에, 북한을 지지하고 국적을 북한으로 하는 이들은 <조선인총련합회, 일명 '조총련'>에 적을 두고 서로 반목하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 KCCJ는 화해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4. 재일동포의 인권과 법적지위 향상을 위하여

KCCJ는 1968년 10월에 선교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으로'라는 표어를 세우고 '재일 동포사회에 변혁을', '세상에 희망을'이란 부제를 걸고, 지금까지의 안일 위주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일본에서 차별받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재일동포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재일동포의 인권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여기고 다시 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1971년에는 오사카(大阪)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을, 1974년에는 동경에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가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재일동포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섬기게 되었다.

재일동포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 동포 2세들에 의하여 취직차별, 공영주택입주 거부, 외국인등록증 지문 채취 및 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 등, 일본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납세를 하고 있는 동포 2세들로서는 굴욕적인 인종차별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KCCJ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장소를 제공하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이들의 활동에 앞장서서 이끌어 왔다.

1974년에 제1회 <마이너리티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WCC를 비롯한 세계교회에 일본 정부에 의한 재일동포 차별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와의 싸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가 설립되어 이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와 연대하여 1970년대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크게 동참하였으며, 1980년대의 외국인 지문날인 철폐운동에 앞장섰다.

5. 조국의 남북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국의 남북 분단의 아픔은 이곳 재일동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가 주관하여 1984년10월29일~11월2일에 일본 동경에서 100키로 정도의 거리에 있는 YMCA 수양관 '도산소(東山莊)' 회의에서 출발한다. 애석하게도 북한교회 대표들은 참석치 못했지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및 해외교회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남북한 교회의 첫 만남은 1986년9월2일~5일, 스위스 글리온에서였으며, 일본에서의 첫 만남은 1989년에 일본NCC의 초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북한에 방문단을 보내게 됨으로 왕래가 활발해 졌다.

그 당시 남북한의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남북한 교회를 이곳 일본 동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과 북, 그리고 해외교회 기독교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라 고백하고 1990년 7월에 동경 한국YMCA를 장소로 하여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동경회의>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북한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서기장 고기준목사를 비롯하여 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NCC를 비롯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협약관계에 있는 각 교단, 미국, 캐나다, 독일



등지의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지도자 등이, 그야말로 북한교회가 정말 실존하는가, 북한에도 목사가 있는가를 확인이라도 하는 듯 앞을 다투어 동경으로 모여 왔다. 이 모임은 2002년 까지 8회에 걸쳐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계속되었으며 남북한 교회의 왕래가 수월해질 때까지 계속하였다. 일본에는 북한을 국적으로 하고 있는 조총련이 있기 때문에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북한교회 대표들을 초청하기가 수월했는데, KCCJ가 조국의 이념적 틀바구니에서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6월17일~19에 스위스 제네바의 보세이에서 북한교회와의 만남이 WCC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12년 1월 작고한 故강명철 前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이후 그 아들로서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명철 목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여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에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명철 위원장과 리정로 부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하고, NCC와 15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은 전술한 도잔소 회의의 30주년을 기념하여 모였는데 세계교회가 매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할 것을 제안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그리고 최근 지난 2019년7월27일 부터 8월1일에 북한을 4명의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의회를 가지고 봉수교회 및 칠골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 재일대한기독교회로서는 5번째로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내년 2020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명철 목사를 비롯한 대표단을 동경에 초청하여 제9차 <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를 8월25일-28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오랜만에 조국교회 대표들과 북한교회 대표들이한자리에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관계, 인권 등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NCC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주관하는 통일 및 인권 관계의모임에 초청하게 되면 선교협약 관계에 있는 보수적 성향의 교회도 참여하게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분열된 조국교회를 만나게 하는 참 교회일치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인 것이다.

6.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교회일치 네트워크에 동참

이러한 일은 우리 KCCJ의 역량으로만은 부족하여 함께 연대하며 협력하는 일본교회들과, 조국교회 및 세계교회가 있었다. KCCJ는 일본교회와 선교협약을 맺고 또한 일본기독교협의회(NCC)와의 가맹과 함께 일본교회 및 단체들과의 교류 및 협력과 연대를 해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국교회와의 연대와 협력은 큰 힘이 되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 통합, 대신, 백석,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8교단과 선교협약 관계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등의 가맹교단으로서 세계교회와도 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랜 세월동안 KCCJ를 파트너교회로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는 캐나다장로교회(PCC)와의 연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국개혁교회(RCA), 미국합동그리스도교회(UCC), 호주연합교회(UCA)와 선교협약관계를 가지고 연대하고 있으며, 캐나다연합교회(UCC), 미국연합감리교회(UMC)와 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어, 작은 마이너리티교회이지만 세계적인교회일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교회이다.

7. KCCJ의 특징

첫째로, 초교파적이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의 합동(Uniting)을 이룬 교회로서 형성되어 왔다. 일제의식민지 통치하에 장/감/성 연합의 교회로 전도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동안 타교파와의 선교 협력과 협약을 체결하는 일로 여러 가지 신앙 스타일이 교회 안에서 초교파성을 지니면서 하

나가 되어 왔다.

이어 두번째로 소수성(minority)을 들 수 있다. 재일(在日)의 존재와 피차별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인권·인간존엄에의 대처이다. 이것이 아픔을 안고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왔으며, 또한 일본에 살고 있는 민족적 소수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다양성(diversity)이다. 교회의 구성원은 일제 강점기에 현해탄을 건너 왔던 1세와 그 후손인 재일 2세부터 5세까지 있는 재일의 세대와, 최근에 도입한 소위 신 1세, 그리고 일본 국적을 지닌 자와 재일코리안 국적을 지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한국에서 건너와 일본인과 국제 결혼하여 사는 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흥미를 가진 순수한 일본인, 조선족 등 다양한 구성원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사용 언어의 이중성, 아이덴티티의 문제 등이 있지만 그것들을 풍부함으로서의 다양성으로 일본선교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

8. 일본에 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에 힘쓰는 KCCJ

전기하였던 제1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는 민족적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일이었다면, 20년 후 1994년에 가진 제2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는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 개정과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 등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모였으며, 그 후 21년이 지난 2015년11월에는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를 동경에서 가지게 되었다.

제3회 국제회의의 이슈는, 일본 보수 정권의 극우성향의 민족적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대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HateSpeech)를 극복하고 일본정부가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하도록 세계교회가 공유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공생의 장막을 넓혀 가자는 것이다. 이 국제회의를 위해 일본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가 협력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KCCJ는 이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적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려 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 재일동포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삶의 양식을 찾아 모여 온 무리들이며 이들 또한 과거 우리 재일동포가 겪었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민족적 마이너리티들이다. KCCJ는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그들의 인권과 삶의 도우미로의 일을 추진하는 마이너리티 선교센터의 설립을 지난 2017년4월8일에 일본기독교교회관에서 하였다.

9. KCCJ의 다양성 속에서 협력하는 선교사

KCCJ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가, 해방 전 부터 일본에 살고 있었던 재일동포의 후손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이들이다.(30%) 둘째가, 1980년대 부터 다른 목적으로, 혹은 부모를 따라 일본에 와서 사명을 받아 일본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역자가 된 이들이다.(30%) 셋째는 본국 선교협약 교단으로부터 선교사로 파견 받아 KCCJ에 협력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다.(40%)

KCCJ는 다양한 성장과정과 교파적 배경의 교역자들이한테 어우러져 섬기고 있다. 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사역하는 목회자에 따라,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전혀 필요 없는 일본어로만 예배드리는 교회도 몇 곳 있고, 일본어가 전혀 필요 없는 한국어로만 예배드리는 교회도 몇 곳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어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예배 및 회의 등 교회 운영에 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앙 및 신앙적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출신과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공생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징표를 만들어 가는 선구자적인 소수자로 KCCJ



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주셨음을 인식하는 사명감을 재확인 하여야겠다.

일본교회도 아니고 한국교회도 아닌 재일의 상황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세대를 달리하는 교회, 1980년대부터 본국의 여행자유회화에 따른 다수의 신세대의 입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수적인 증가와 활기차고 열정적인 신앙 양상이 다소 불협화음을 일으켜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KCCJ는 재일의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본국의 각 교단에서 파견 받아 일본교회를 섬기든지, KCCJ를 섬기든지 선교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선교대상국이 아닌 선교협력국인 것을 인식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교회일치적 선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